



3면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음 4월 19일) 제374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전방위 설득

김관영 지사, 문체부 제1차관과 면담
전북 핵심 문화사업 예산 반영 요청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기구 구성 제안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사진)가 1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갖고, 2026년 국가예산에 전북의 핵심 문화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부처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김 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정책적 타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주요 사업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총사업비 2,505억원)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총사업비 450억원)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총사업비 187억원) 등이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 공간으로,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실현

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문체부에 국정과제 반영과 법정부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지역문화의 창의적 성장과 국가 문화정책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사업으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문화는 전북의 뿌리이자 경쟁력이며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할 자산"이라며 "오늘 제안한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의 밀레이 면담을 지속할 예정이며, 정점 사업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열린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2회 청소년박람회 개막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

'제2회 전북 청소년박람회'가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관계자, 도내 학생 및 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표창 및 청소년 축하공연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일부 부스를 직접 운영하

미래·글로벌·안전·나눔 등 7개 분야 108개 체험부스 운영

는 등 청소년 주도형 행사로 △미래·진로 △지역·성장 △그린 △글로벌 △상상 △안전 △나눔 7개 분야에서 총 108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청소년 워터와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차량 170여 대를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참가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시키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모두가 누리는 미래형 도시 완주

완주 대둔산 2025 축제

6.7(토) - 6.8(일)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

너의 도전 앨범에 저장해 보, 대둔산 모먼트!

대둔산 비경경 등산대회 | 대둔산 하이킹 (마천대, 은하수 둘레길)

완주군 WANJUGUN

도민 안전 최우선... 도, 여름철 재난 대응 체제 가동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별 24시간 비상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태풍과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재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부단체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위험 기상 예보 시 실국장급 책임자가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13개 협업 분야와 17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단계별 24시간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기상청의 3개월 기상 전망(4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올 여름은 6월부터 강

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7월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기후 특성을 고려해 2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전 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14개 시군과 민관이 함께한 현장 간담회와 피해 우려지역 점검 등을 통해 중점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 주요 시설 16,327개소를 점검했으며, 재해복구사업장 88개소의 위기 전 공정 완료를 추진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기존 506개소에서 59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해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3대 유형(산사태, 하천, 지하차

도)중점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하차도(20개소) 등 주요 위험시설에는 공무원과 경찰 등 4인을 지정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2,618개소와 도내 하천 2,72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속한다.

아울러 도는 각 마을의 지리와 특성을 잘 이해 주민들로 '마을 1대피지원단'을 구성해 실시간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 체계를 마련했으며, 위기 예보 시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비상물품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 강우나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재난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식품기업 맞춤형 5단계 기술지원 전략' 본격 추진

도,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 혁신기획단 회의... 식품기업 기술 애로 수요조사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라승용 위원장)는 15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혁신기획단 회의를 열고, 농식품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과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기술보유기관 6곳과 위원회 5개 분과 위원장 등 15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기술 수요조사와 전문경력 활동가 연계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농식품기업 혁신성장 5단계 전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마련한 5단계 전략은 △식품기업 기술 애로 수요조사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기술 매칭 간담회 △전문가 현장 진단 및 과제 도출 △맞춤형 솔루션팀 구성·심층 컨설팅 △솔루션 사업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전략은 매출 1억 이상~100억 미만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애로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라승용 위원장은 "이번 전략은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 문제를 정확히 진단

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많은 기업이 기술 수요조사에 참여해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국장은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는 기술혁신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서 시작된다"며 "도는 앞으로도 농식품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정책-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